

미세 먼지 다 없앨 수는 없어도 진화는 막을 수 있다.

서울 백운초등학교

4학년 김한민

오늘은 아빠랑 같이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아빠는 버스정류장으로 가지 않고 우이동까지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집에서 그곳까지는 다섯 정류장을 지나야 하는 꽤 먼 거리였다. 나는 조금 불만이 생겼다. 아빠는 우이동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걸어가기도 힘든데 우이동까지 걸어가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한민아 많이 걸어야 건강해지고, 건강을 위해 걷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게 좋은 거야” 오늘도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난 아빠랑 함께 대화하면서 등산이나 현장 학습을 가는 게 제일 좋다.

우리가 우이동에서 연산군묘로 그리고 방학동길을 지나갈 때였다. 두 갈래의 길이 우리는 맞이하고 있었다. 아빠는 거리낌 없이 내려가는 길이 아닌 올라가는 길을 택했다. 아빠는 길을 모르는 듯 나에게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니깐 위로 가는 게 맞을 거야” 하며 방학동 묘원 방향으로 갔다. 한참을 계속 오르지만 한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두 갈래의 길이 나왔다. 하나는 무수골이고, 또 하나는 원통사우이암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그때 아빠는 “한민아 신라시대 도선대사가 만든 원통사 한번 보고 가자” 했다.

난 그것이 아빠의 작전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북한산도 모두 등반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아빠는 대동문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별궁터와 어영청터 등이 있다 해서 결국 북한산을 종주시켰던 기억을 잠시 잊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다. 둘레길이라고 왔는데 이렇게 가파르고, 힘들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 보다 더 힘든 여정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원통사까지 겨우 올라갔다. 마음 속에 불만은 조금 있지만,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바로 앞 큰 바위를 손짓하며, 저기까

지 얼마 안 되니 올라가보자 했다. 가까워 보이는 바위라서 나는 따라 올라갔다. 하지만, 이걸 등산이 아니라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야 했다.

힘들게 우이암 정상에 도착했다. 그런데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서울 쪽의 하늘은 뿌연 안개가 끼어 있었고, 경기도 쪽은 뿌연 안개가 없었다. 우리 학교도 뿌연 안개로 희미하게 보였다. 분명히 아빠는 미세먼지 예보를 보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청명한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라 오늘 산행이 즐겁고,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의 서울 하늘은 청명함이 아닌 뿌연 연무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아빠 저게 스모그예요?”

아빠는 나에게 오늘 산행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 그런데 아빠는 항상 비행기내에서 기장이 서울 도착을 알리기 전에 먼저 알았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보면 만화에서 나오는 보호망처럼 황갈색 먼지가 보이면 서울 하늘 이었다고 한다. 아빠는 내가 2살 때까지 차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폐렴으로 2번을 입원하고, 천식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차를 폐차시켰다고 한다. 아빠는 오늘 나에게 우리가 뿌연 먼지 보호막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관심 있게 읽었던 책들에서 미세먼지는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거울에 얼어 있다가 해동이 되면서 기화하는 중에 생물의 사체나 흙들이 잘게 부서져서 하늘로 올라가 지구의 대기류를 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늘 움직인다. 대륙도 움직이고, 바람도 자전의 영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먼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중국의 고비사막에서 부는 모래 폭풍이 편서풍에 실려 한반도를 찾게 되었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까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가 만드는 미세먼지도 많다고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당진의 석탄 화력발전소, 그리고 철강 단지 등에서 화석연료를 쓰고 있어 서울을 위협한다고 한다.

우리는 미세 먼지 속에 태어나서 미세 먼지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는 알갱이가 클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미세먼지를 보면, 조용한 암살자란 이름이 생각이 났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시나브로

우리 폐와 피부를 통해 들어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아주 조금씩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암살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비했다고 안심했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새롭고 더 미세한 먼지들이 만들어 지는 결과를 낳았다.

미세 먼지 속에는 중금속만 있는 게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와 하늘을 오염시키고 있고,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이나 몸에 해로운 비활성 기체들이 점점 우리주변을 채우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비누를 만들기 위해 가성소다를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죽었다. 산업 혁명 때는 석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갔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겪으면서, 원인을 미세먼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그 원인모를 병의 시작이고, 기대수명을 줄인다는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먼지가 조금 제거되었다 싶을 때, 나노크기의 먼지들이 만들어져 호흡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로 파고드는 병까지 만들어 지고 있다. 이렇듯 미세 먼지는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작게, 더 치명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암살자를 없앨 방법은 없다. 하지만 암살자의 진화를 막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덜 편안해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나누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미래의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맑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가까운 곳은 걷고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물건은 아껴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할 때 우리의 하늘은 다시 푸르고 청명한 하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세먼지 다 없앨 수는 없어도 진화는 막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